

##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과 生死觀(三)

跛龔生

그리하여 程子は 『有形皆器, 無形皆道, 形而上爲道, 形而下爲器, □□如此說, 器亦道 道亦器也』라 하였는데, 太極思想의 天은 物을 이름이이 그는 無形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形體로서의 天은 器이요. 道가 아니어니와 그러면 道는 무엇이나 하면 그는 오즉 事物을 變化하는 時가 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周 易은 天時를 天道와 같은 意味로 使用하였다. 그러나 程子가 그와 같이 形上形下論의 論理는 相難할지라도 힘써 道神, 性, 理, 教 等の 人格說을 否定한 것은 特히 注意할이만한일다. 그리 하여 저는 『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若如或者以清虛, 一大爲天道則, 乃以器言, 而非道也, 佛氏不□陰陽晝夜死生古今安得有形而上者 興聖人同乎』라 하였다.

어떠든 道이라 하는지 理라하든지 神이라하든지 佛이라하든지 無形한 形而上者에 人格을 擬해야 그가 實在의 聖人과 같다 함은

一 種의 推說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니 일즉이 이를 剔抉함은 程子의 卓見이다. 그리고 『或者以清虛, 一大爲天道則, 乃以器□而非道也』라 함은 特히 □味할만한 認識이다. 어찌 그러냐하면 老氏의 清虛는 勿論道를 이룬것인데 그을 가지고 『乃以器言, 而非道也』라 함은 清虛를 氣로 理解해야 그것은 形體인 器에 包含한 屬性인것을 明示하였음으로써이다.

다시 말하면 元來 氣는 道或理가 表現되는 容態를 가르친 것이니, 그럼으로 道即清虛는 形體인 器의 屬性이 될 것뿐이라 함이다.(勿論程子는 다른곳에 잇어서는 氣와 器를 混同하여 形體認識이 □亂하고 잇지마는 그리고 清虛도 有形者의 形容詞이요. 一大로 有形者의 形容詞이니 그럼으로 有形者의 形容詞으로써

無 形한 道를 담을 수 없는 것은 어찌 程子의 말과 다르다 할 수 잇스

라.

또 朱子는 『形而上者 謂之道，形而下者 謂之器，形而上者，指理而言，形而下者，指事而言，物物事事皆有其理，事物可見，而其理難知，卽事卽物，便見此理，只是如此者，又曰，形而上底謂，混是道理，形而下底定，這箇說，得極精巧，故明道云，唯此說，□得上下，最分明，又曰，道是道理，事事物物皆有是箇道理，器是形跡 事事亦皆有是箇形跡，有這卽有器，有器便有道，物必有則，可見底是器，不可見底是道，理是道，物是器』라 하였다.

그런데 朱子の 形上은 理이요. 形下는 物이니 『事事物物，皆有是理』라 하여 理를 事와 物의 固有한 技能

卽 『屬性으로 認識한것과 事物可見，而其理難知，卽事卽物，便見得此理』라 하여 理가 事物의 밖에 있지 안코 그 속에 잇슴을 克明한것은 實體觀念의 正當한 認識이다. 그러나 아즉도 老氏思想의 殘滓가 清算되지못한만큼 『形而上底虛，混是道』라 하여 다시 空虛한道를 안아가지고 雲霧中으로 投入하였다.

그리고 理虛物實說은 老氏思想의 虛無觀念이니, 朱子가 그를 借來하여 太極思想의 形上形下를 說明한것은 너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朱子가 『有道卽有器，有器便有道』, 『物必有則』이라 하여 物과 理가 同時同處에 同在함을 反復說明한것을 注意할만한일이다. 그리 하여 『問，形而上下，如何以形言，曰(朱子)

此 言最的當，設若設以有形無形言之，便是物與理，相簡動了，所以謂□□得分明者 只是上下之間，分別一個界，至分□ 器亦道，道亦器，有分別而不相□也』라 하였다.

卽 物과 理는 그 形의 有無로써 間斷할바아니니, 만일 그를 有形과 無形으로 分別하면 兩者間에 間斷이 생긴다. 그럼으로 그를 形上과 形下로 分言하여 物과 理의 間에 間斷의 觀念이 생기지안도록 한 것이다 함이다. 그리 하여 朱子는 『道末當難平器，這只是氣之理，這人身是器，言語動作，便是人之理，理只在器上，理與器，未嘗離』라 하여 거듭 理가

器 의속에 잇는 것이요. 그 밖게 잇는 것이 아님을 切言하였다.

그리고 朱子가 繁辭傳에 있어서 此節의 重要함을 力說한것은 炯眼이라 할 수 있거니와 潛室陳氏는 『一物必有一理，道卽器之理，器既有形，道卽因而顯，以是分開不得底事，所以□言形者，見得本是一物若除了此形字，止言上者謂之道，下者謂之器，却成二片矣』라 하였다 .

미말은 物과 理를 有形無形으로 分別치안코 形下形上으로 分言하여 物과 理를 다같이 形者로 俱言하여야 그것이 本是一物인것을 意識할 수 있다 함

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形字를 除了하여 다못 上者는 道라 이르고 下者는 器라 이른다하면 物과 理가 分離되어 二片이 되니 形字를 用하여 物과 理를 俱言한 것이라 함이다.

또 朱子는 『卦爻陰陽，皆形而下者，其理則道也，因其自然之化，而裁之，變之義也，變通二字，上章以天言，下章以人言』이라 하고 『化而裁之，謂之變，推而行之，謂之通這是兩截不相干，化而裁之，屬前項事，漸漸化去，制裁成變則，謂之變，推而行之，屬後項事，謂推而爲別一卦了則，□行無□ 故舉而措之天下謂之□業，便只是定天下之吉凶，成天下之□□者』라 하였는데，朱子が 化와 推를 前後로 區分함은 옳치마는 變과 通을 兩裁하여 그의 不□干을 云謂함은 易理의 正態와 反態의

交 互關係를 理解치 못한 말이다. 그리고 元來化而變과 推而行之는 一事物의 時間的 異同에 依한 □□를 이룸이니 비록 時間의 先後는 잇을지라도 그 事物이 兩載된 것은 아니다.

어찌 어느 事物의 或得或失과 或推或退를 各各分離하여 그의 不相干을 말할 수 잇으랴. 勿論 周易의 卦體로 말하면 『化而裁之』는 前項事에 屬하고 『推而行之』는 後項事에 屬한것이지마는 그러나 『化而裁之』는 生의 □得을 이룸이오. 『推而行之』는 生의 發展을 이룸이니 元來生의 □得과 生의 發展은 兩載할수 잇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繫辭傳의 『學而措之，謂之事業이라함은 乾易坤問의 生生原理가 實現되어 感德大□이 成就함을 이룸이니 말하자면 所謂 『適者生存不適者滅亡』의 進化原理를 論斷한 것이다.』